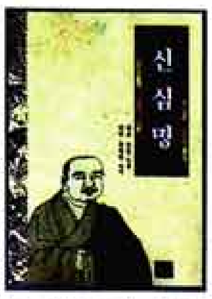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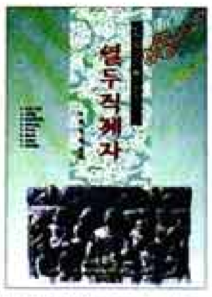
입 문



■신심명/
대원 문재현 역저

신심명 본문에서 삼조 승찬 대사께서는 45대치 법을 양끝을 들어 양끝을 쓸어버리고 있다. 그리하여 한결같이 양끝이라 할 것이 본래 없는 본연(本然)의 경지를 이르고 있는 것이다.
역저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는 이러한 신심명을 주해의 한 줄로 회통하고 본연을 누리는 송으로 농(弄)하셨다. 지극한 도리는 얼굴에 몇 겹 두꺼운 철판을 깔지 않고는 이를 수 없다 하였으니 이러할 때 무어라 해야 할고.
최상승법이란 이름조차 설 수 없는 그것을 알고자 하는가.
금강경의 부처님께서 자리 펴 앉으신 일상과 불이(不二)의 도리를 묻는 문수의 물음에 답한 유마의 묵연, 그리고 신심명 마지막 장, 대원 선사의 통쾌한 웃음이 있다. 이 웃음을 보라!
바로보인, 10,000원 (02)597-2460

부처님 제자들의 행장



■부처님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열두 직제자/정인스님 지음

'소욕지족(小欲知足) 두타(頭陀)제일'의 제자로 대승불교에서 부처님 법을 첫번째로 받은 마하가섭, 부처님을 그림자처럼 브필했다는 아난다와 부처님의 아들인 '밀행(密行)제일'의 제자 라훌라 등 12인의 부처님 직계제자들. 불자들의 대부분은 부처님의 직계제자가 누군지는 알고 있지만 그들이 왜 출가했으며, 그들이 꿈꾼 이상은 무엇이었을까.
이 책은 이같은 궁금증을 시원스레 풀어준다. 이들 제자들의 행장을 마치 한 권의 영화를 보듯 재현해 놓은 책. 한역 〈아함경〉과 〈율장〉을 기초로 역사적 사실에 충실하면서도 남방 팔리어 〈아함경〉을 비롯한 전설·설화 자료들을 참조해 단순히 제자들의 일대기적 서술에 그치지 않고 불교적 신앙심을 드러내는데도 심혈을 기울였다.
여래, 9,000원 (02)730-89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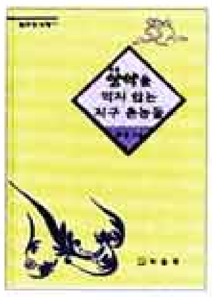
에 세 이

참회와 발원의 본질-기도

■영험도량에서 소원 성취한 이야기/
진현종 지음

기도를 무작정 현세의 복을 비는 행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기도는 참회와 발원을 본질로 한다.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의 자신을 가꿔가는 적극적인 수행방법이다. 간절히 기도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은 신심이 깊어져 가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팔공산 갓바위, 강릉 등명락가사, 여수 향일암, 영천 거조암 등 전국의 스물 다섯 곳 기도도량에서 기도를 통해 겪은 갖가지 영험담을 소개한다. 고전적 이야기가 아닌 현대적 영험담이라 더욱 공감할 수 있다. 저자는 '기도는 근기의 높고 낮음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참불자라면 반드시 해야 할 수행의 기본'이라고 말한다.
대원미디어, 5,000원 (02)318-0482

법화경의 설명, 이해하기



■양약을 먹지 않는 지구 촌놈들/
혜성스님 지음

사람은 아프면 약을 먹는다. 저자는 나라가 어지럽고 사람들이 갖가지 고통을 받고 괴로워 할 때도 약을 먹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 약은 다름아닌 〈묘법연화경〉. 묘법의 양약을 먹으면 낫지 않는 병이 없고, 소멸되지 않는 업장이 없고, 오지 않는 복이 없으며, 쌓이지 않는 공덕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나 법화경은 받아 지니기 어렵고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 책은 그런 법화경을 쉽게 설명한 책. 법화경의 구조와 묘법연화경의 대의를 간단히 설명하고 저자가 나름대로 법화경을 수행해 오면서 얻은 이해와 법의 가피력을 담았다. 재미있는 글귀가 많다.
위음왕 12,000원 (051)625-90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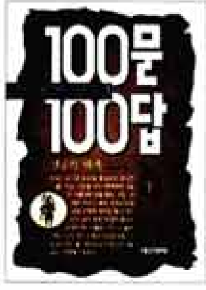
기 타

피라미드 에너지 - 의문 풀기

■신과학으로 풀어보는 피라미드 에너지/
허창욱 지음

현직 과학자의 시각에서 피라미드 에너지의 신비를 풀어낸 책. 피라미드 에너지를 소개하는 해외 자료들 중에서 충분한 검증과 실험을 거친 것이 전무한 실정. 그러나 이 책은 막연하게 피라미드의 신비한 현상만 강조하고 있지 않다. 피라미드 에너지의 현상과 근원을 신과학의 시각으로 추적하면서 국내외의 관련자료와 주장을 충실하게 비교·비판하고, 아울러 공간 에너지와의 연관성 속에서 과학 혁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현직에서 신과학의 이론과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저자가 수년간 수집하고, 연구하고 또 직접 실험 과정까지 거치면서 쓴 이 책은 피라미드 에너지에 대한 독자들의 의문을 시원하게 풀어준다.
모색, 9,000원 (02)765-7438

불교이해의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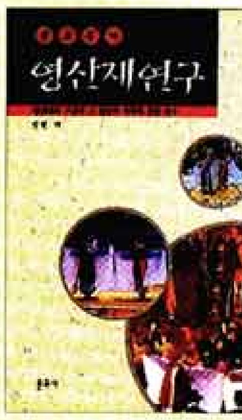


■100문 100답-불보살·신중 편/
고명석·고광영 지음

불·보살·신중을 모두 망라해 그들의 이름과 탄생 배경 등에 관한 역사, 역할, 간직된 이야기, 신앙상의 특징과 문화적 양상 등을 일목요연하고 알기쉽게 정리한 최초의 책. 상·하 두 권. 대원정사가 펴내고 있는 '100문 100답 시리즈'의 하나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불·보살·신중을 설명하면서 인도의 신들 및 중국과 한국의 토속신들이 불교 속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부터 그 문화적 양상과 신앙의 특징까지 소개하고 있다는 점. 인도 신화의 체계적 이해는 물론 우리 문화 속에 들어 온 많은 신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불교를 이해하는데 사전과 같은 자료로 활용할만한 가치가 있는 책.
대원정사 각권 8,500원 (02)754-1614

금주의추천도서

중생의 화두 '나'에 대한 풀이



■영산재 연구/법현스님 지음

불교의 의례의식인 영산재의 진행은 범패(梵唄)로 불리운다. 불교음악인 범패는 주로 재(齋)를 올릴 때 부르는 노래로써, 장단과 화성이 없는 독특한 음악이다. 그러나 배움에 어려움이 있고, 배우고자 하는 이가 줄어들어 그 맥이 끊어져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불교음악을 널리 알리고 그 맥을 잇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영산재의 구성과 범패의 기능, 작법절차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 영산재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다. 현재 불교방송과 불교음악의 세계 두 곳에서 교재로 쓰이고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알차다.
불교음악을 공부하는 학인스님들뿐만 아니라 영산재에 관심있는 일반 불자들에게도 길잡이 충분한 길잡이가 될만한 책이다
운주사 15,000원 (02)720-9372

우리 시대의 큰스님을 만난다!

산승의 향기

큰스님 25인의 살아온 이야기

현대 한국불교를 지탱하고 있는 큰스님들의 삶이 압축되어 있는 이 책은 그분들의 출가이야기, 수행이야기 그리고 후학들과 대중들에게 주는 격려와 채찍의 말들이 담겨있다.

우리곁엔 언제나 큰스님이 있었네

청정한 삶, 어려움에 굴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 오직 한 길로 정진하는 고집스런 삶,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한 무한한 애정 등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정신적 가치들로, 그분들의 삶이 발산하는 향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관응 큰스님 · 구암 큰스님 · 덕암 큰스님 · 문성 큰스님
· 범룡 큰스님 · 비룡 큰스님 · 서암 큰스님 · 서옹 큰스님
· 석주 큰스님 · 성수 큰스님 · 수산 큰스님 · 숭산 큰스님
· 송찬 큰스님 · 운경 큰스님 · 운문 큰스님 · 원담 큰스님
· 월산 큰스님 · 월하 큰스님 · 응담 큰스님 · 일타 큰스님
· 진제 큰스님 · 청하 큰스님 · 혜암 큰스님 · 화산 큰스님
· 달라이라마

이학종 저/신국판/255쪽/값 7,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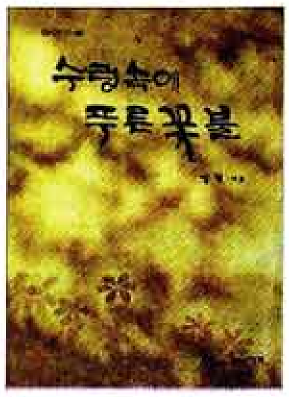
운주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 TEL:720-9372~3 FAX:723-0646

본 지면은 출판사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신간도서의 홍보기회를 제공하고 독자들에게는 정리된 책의 내용을 미리 파악하게 하여 꼭 필요한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획기사형 광고면입니다.

■참여문의 : 현대불교신문 영업부 ☎ 02)732-1522(직)

금주의 명저순례

역사에서 찾는 과학정신



■수렁속에 푸른꽃불/명현스님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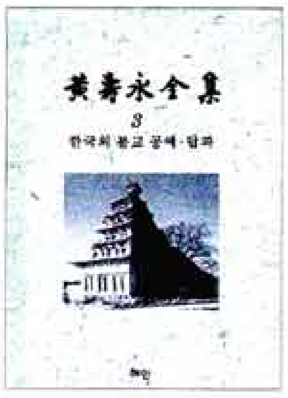
고해의 바다에서 업보를 반복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 존재의 이유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 참자아를 찾아 가는 길을 제시하는 구도소설. 이 소설은 실종된 자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것은 업장의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공덕의 길임을 말한다.
수진의 삶과 진공의 끝없는 구도의 걸음을 통해 저자는 사람으로 태어나 나 자신도 모르게 받아들여야 했던 수많은 관념들, 한 걸음 더 나아가 과거생으로부터 지고 온 업이란 관념의 덩어리를 부수어 버리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책을 다 읽고 난 후에 펼쳐지는 하얀 여백. 그 마음의 여백에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여유. 이 소설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동남기획, 7,000원 (02)465-5128

금강경 - 현대적 풀이

■금강경/정용수 지음

아무리 훌륭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라도 읽는 이가 많지 않거나 읽어도 그 참맛을 알기 어렵다면 가치는 줄어들기 마련이다. 최근 경전을 쉽게 설명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때문이다. 경전의 본뜻을 그대로 전하면서도 그 의미를 재미있게 엮어 낸다면 읽는 사람에게는 분명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책이다. 원문과 주해를 제시하고 그 뜻을 마치 이야기하듯 풀이해 놓았다. 책 제목 앞에 '신역(新譯)'이라는 말을 붙인 것도 짧은 문장과 소박한 비유를 통해 〈금강경〉의 참맛을 느끼게 했기 때문이다. 번역에 있어 과감히 현대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특이하다.
우리출판사, 12,000원 (02)313-5047

불교미술의 교과서



■한국의 불교 공예·탑파/황수영 지음

미술사 각 부분의 중요 작품에 대한 총 101편에 달하는 방대한 개별 논문들을 주제에 따라 탑·사리장엄구·석등·부도·불교공예·도자기·금속제품·사경·불화 등을 5부로 나누어 실은 학술서. 각 유물에 대한 2백4장의 도판사진을 함께 수록해 놓았다. 양식사에 치중하고 있는 미술사 관련 책들과는 달리 문화재 자체의 유래와 조성배경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독특하다.
삼국시대로부터 조선시대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탑파의 특징과 탑 속에서 발견된 사리장엄구를 다룬 것이 눈여겨 볼만하다. 고대의 사경 중 특히 금은자경(金銀字經) 가운데 특기되어야 할 고려시대의 금은자대장경 사업의 진행과정을 설명해 놓은 것이 특기할 만하다.
혜안, 50,000원 (02)511-8651

과거의 거울 - 현재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종본스님 지음

버지니아 대학의 사회심리학자인 이언 스티븐슨 박사 연구팀은 윤회설에 대한 연구끝에 놀랍게도 전생을 기억하는 20여건의 사례를 밝혀내고, 그 이야기를 책으로 펴낸 바 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을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고 했다. 복도 그렇고 업도 그렇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전생에 관한 갖가지 이야기들을 묶은 책.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에게 전생 이야기는 터무니없이 들릴지도 모른다. 과거사를 알고 싶으면 지금 현재를, 미래사를 알고 싶으면 현재 자기의 행동을 살피라는 부처님 말씀이 있다. 이 책도 바로 현재를 바르고 선하게 살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전한다는 의미에서 펴냈다고 저자는 밝히고 있다.
솔과학 8,000원 (02)928-1871

역사에서 찾는 과학정신

■한국사에도 과학이 있는가/박성래 지음

세계 최고의 목판인쇄물인 다라니경에는 우리의 과학정신이 얼마나 어떻게 깃들여져 있는가. 황룡사종과 에밀레종도 마찬가지. 그 속에 담긴 우리 선조들의 불심과 창조적 정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도선스님의 풍수지리는 과연 과학인가.
이 책은 우리 역사 속에서 '과학'이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으로 출발한다. 그리고 첨단과학에도 결코 주눅들지 않는 우리의 빼어난 과학정신과 그 유산들을 소개한다. 첨성대, 토목건축, 측우기 등 각종 유산들을 통해 과학에 있어서의 민족성도 언급한다. 시대의 어둠속에서 과학기술을 놓치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의 노력이 느껴진다.
교보문고, 7,500원 (02)3973-500